



아경 명소 된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갯벌탐방로 휴일인 10일 오후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에 설치된 무지개색의 갯벌탐방로 위로 LED조명이 켜지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은행권, 금리 5% 초과 자영업자 대출이자 150만원씩 돌려준다

광주은행·18개 시중은행 참가
지난해 순이익 10%, 2조원 지원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캐시백(현금환급) 지원에는 광주은행과 시중은행 등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이들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 2조원 정도다. 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회원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의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방식은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 포인트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일단 세웠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이 미지급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가 발표한 상생금융 지원책을 제외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조원에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다. 총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미연합 KCTC 훈련 장병 4200여명 참가

7사단 여단·미 여단 1개 대대 참여
15일까지 인제서...육참총장 지도

육군은 지난 5일부터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한미연합 KCTC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는 7사단 연승여단과 미국 스트라이커여단 1개 대대, 전문대항군연대 등 4200여 명의 장병이 참여한다. 한미는 올해 들어 2월, 3월, 8월, 11월에 각각 KCTC 연합훈련을 했다. 이번이 올해 마지막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 여단 전투단의 연합전투수행능력 강화와 상호운용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전문대항군연대와 쌍방 자율기동식 교전을 통해 전사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한다고 육군은 밝혔다.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공격·기동헬기, 드론·무인기 등 전투장비 300여 대를 투입했으며 공격·방어작전 각각 무박 3일의 일정으로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아미 타이거' 모뎀화 부

대를 편성해 아미 타이거 전투체계를 검증하고 있다. 아미 타이거는 각종 전투 플랫폼에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신기술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한 미래형 전투체계로, 이른바 '육군의 미래'로 불린다. 부산관학교에서 교육 중인 초급부사관 229명도 훈련에 동참해 전투경험을 쌓고 있다.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은 훈련 현장을 방문해 "전투현장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부대 단위 연합훈련을 많이 할수록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그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해 적으로 하여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총선에 발목잡힌 달빛내륙철도

역대 최다 의원 발의 기록 법안
선거 앞두고 선심성 논란 의식
국회 첫 관문 소위에서 급제동
국토위 법안소위 재논의 전망도

여야 역대 최다 수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총선 이슈에 발목 잡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 등을 의식한 일부 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논의 첫 관문인 법안 소위원회(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광주시와 대구시는 과다 재정 논란 해소 등을 위해 고속철 대신 3조원 안팎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반철(복선) 전환을 제안하는 등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다. 여야도 조만간 국토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는 물론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도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광주·대구 정치권의 '달빛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와 광주시,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를 열어 심사 대상 안건으로 오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애초 특별법 연내 처리를 목표로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의 법안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8일로 예정됐던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하려 했으나, 관련 부처와 일부 의원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여야는 일단 오는 19일께 국회 논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열고 재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전체회의와 법사위, 표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탓에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 소위원회 한 의원은 "지난 5일 소위에선 관련 정부 부처의 반대도 있었고, 하루에 논의를 끝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추가 논의는 물론 공청회 등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안팎에서는 "조만간 열리게 될 상임위 소위에서 한 두 차례 추가 논의될 수 있으며, 전체회의의 상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광주시와 대구시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광주시는 일단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국회를 방문해 일단 국토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와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도 일반철 전환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흥준표 대구시장의 공동으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건의서에는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했던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만 2조 6000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86.34분으로, 고속철 83.55분과 비교해 불과 2분여 정도 차이 날 것이라는 게 광주시와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 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광목 기자 kroh@

4대륙 유망인재
거도안!
전남 행복시역

전라남도가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Jeollanamdo Institute for Talent & Lifelong Education